

‘순간의 기록 영원한 역사’.
’98 사진 영상의 해가 밝았다.
한껏속에도 무궁무진한 메시지를
전할수 있는 사진예술. 올해 불자
사진작가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사
진전과 작품집 발간 등 다채로운
계획으로 사진영상의 해를 풍성하
게 할 전망이다.
사진영상의 해 개막레이프를 제
일 먼저 끊은 작가는 관조스님(법
어사). 스님은 1일자로 9번째 사진
집 《한줄기 빛》(시각 출판사)을
냈다. 돌위에 흩뿌려진 낙엽과 솔
잎, 꽃처럼 화려한 이끼진 돌 등
사찰 주변의 돌, 이끼, 야생화, 낙
엽 등을 포착한 40여 작품이 마치
회화처럼 독특한 감흥을 준다. 관
조스님은 이밖에도 티벳 네팔 등
히말리아를 사진으로 담은 ‘淨土’
주제의 사진집과 전시회를 준비하
고 있다.

기봉스님(하동 보문사)은 2월과
8월 두차례 대대적인 사진전을 개
최한다. 2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진
주 경남예술회관, 8월 11일부터 일
주일간 서울갤러리에서 열리는 사
진전에는 사찰의 불상, 탑 등 문화
재와 사찰에서 본 일출, 일몰 등
불교의 그윽한 운치를 느낄 수 있
는 40여 작품을 전시하며 이에 맞
춰 작품집도 발간한다.

- 관조스님 9번째 사진집 ‘한줄기 빛’
- 선암스님 5월 ‘연꽃’ 주제 개인전
- 안장현씨 작품집 7권 출간계획
- 육명심씨 한국대표예술인 40명 담아

한 얘기를 같이 엮어 작품집을 낸
다. 박상훈씨 역시 문인 미술가 연
극인 등 40여 예술가들의 얼굴을
찍은 사진집을 준비중이다. 육교수
는 또한 참선후의 느낌들을 포커스
에 담은, 선의 세계에 대한 영상적
추구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
획이다.
홍순태씨(신구전문대 교수)는 10
월 삼성포토갤러리에서 티벳 파주

사진전-작품집 ‘붓물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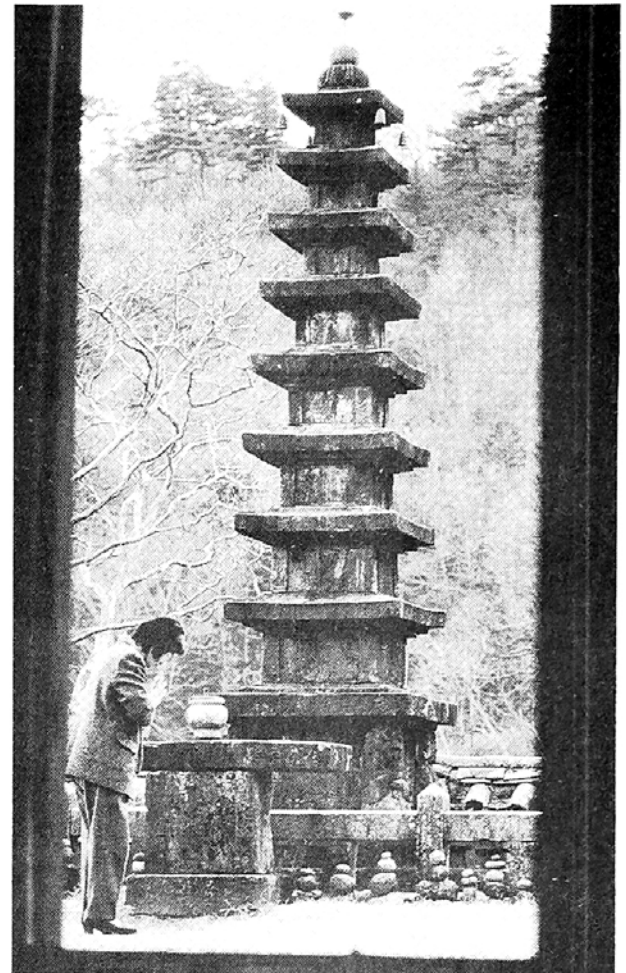
‘사진 영상의 해’ 맞은 불자사진작가들 새해 설거

선암스님(신촌 불원사) 역시 5월
동덕갤러리에서 연꽃 주제의 개인
전을 준비하고 있다. 수련 가시연
꽃 겹겹 백련 흥련 등 각종 연꽃의
다양한 모습을 찍은 사진 150여점
을 선보이는 스님은 6월에는 대만
에서 대만비구니 오공스님과 함께
연꽃전시회를 또한차례 가질 예정.
《석불》(열반의 미소) 《선의 세계》
등 목격한 불교소재 작품집을 낸 바
있는 안장현씨(신구전문대 교수)는
올해 7권의 작품집을 대거 선보인
다. 열화당출판사의 ‘우리문화의 재
발견 시리즈’ 일환으로 《절집 문살
문양》 《사천왕상》 《법종》 《飛天》
《부도·탑》 등과 《서원》 《낙산재》
등이 차례로 나온다. 《절집 문살문

양》은 내소사 정수사 쌍계사 등 사
찰의 화려하고 독특한 문살문양을,
《사천왕상》은 보림사 불감사 등 각
사찰의 사천왕상의 모습을, 《법종》
은 상인사 등 우리나라만의 특색을
지닌 종의 모습과 세부 문양들을,
《비전》은 탑, 바위, 법종, 부도 등
에 새겨져 있는 주악·천인상의 아
름다움을 포착한 것. 이 책들은 영
어로도 번역돼 해외에도 소개될 예
정이다.
예술가들의 얼굴을 집중적으로
담아 사진집으로 엮는 이들은 육명
심씨(서울예전 사진과 교수)와 박
상훈씨. 육명심교수는 서정주 고은
장욱진 박서보 등 우리나라의 대표
적인 예술가들의 모습과 그들에 관

아누기니아 등 세계 오지의 자연과
삶을 찍은 ‘오지탐험’ 전시회를 갖
는다. 또 대원출판사에서 사진안내
서 《풍경사진론》을 발간한다. 이승
민씨는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
인천 신세계백화점 화랑에서 ‘시가
머무는 곳’을 주제로 우리나라 사
계를 담은 풍경사진전을, 불교사진
연합회장 이병준씨는 회원들과 더
불어 부천과 조계사 그리고 지방에
서 연차적으로 불교주제 기획전을
갖는다. 불교사진을 즐겨 찍는 김
대백씨는 4월 현암사에서 《한국건
축》을, 5월 대한교과사에서 《신 국
토기행》을 낸다. 《한국건축》에는
무량사 화엄사 무위사 등 우리나라
의 대표적인 목조건축 사진이 신영
훈선생의 글과 함께 소개된다.

이경숙 기자



기봉스님 작품 ‘예배’. 기봉스님은 두 차례의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다.



관조스님이 새 아침에 파낸 사진집 《한줄기 빛》에서. 바위 위에 흩
뿌려진 낙엽을 회화처럼 포착했다.

호암미술관 명품도록 CD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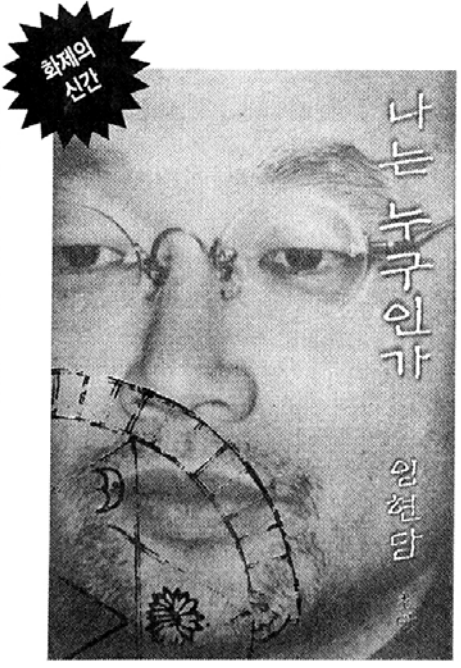
화엄경 변상도등 343점 수록...영어·일어로도

삼성문화재단은 신라백지록
서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(국보
196호), 아미타삼존도(국보218
호) 등 호암미술관의 대표적 소
장명품 343점을 CD로 제작
했다. 우리 미술문화의 찬란한
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보고 그
우수성을 국내 외에 알리기 위
해 제작된 이 CD들은 각 분야
의 다양한 명품 343점에 대한
상세한 설명이 담긴 2장의 CD
로 구성됐다. 한국어 영어 일어
등 3개국 언어로 지원되며 메뉴
마다 각 분야별 특징을 살린 독
특한 애니메이션을 도입해 흥
미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
록 했으며 전통국악을 배경음
악으로 사용했다.
제1권에는 청자자연화문표
형주자(국보133호)를 비롯 청자
분장사기 백자 등 171점이, 제2



권에는 경계 정선의 ‘금강전도’
등과 불화 사경 전적 고서화 불
상 불구 금속공예 토기 등 172
점 명품들의 제작기법, 특징과
제작연도, 작품명에 따라 검색
이 가능하다.
작품을 크게 확대시켜 세밀하
게 관찰할 수 있는 확대보기와
지명에 따른 위치보기, 용어해
설도 제공된다.

흔들리는 우리의 삶 앞에 던져진 영원한 화두!



나는 누구인가

배낭 하나 짊어지고 인도와 히말리아의 오지를 떠돌던 의사 임현담.
그가 수액(術液)처럼 쏟아낸 깨우침을 향한 목소리.
인생의 전환점을 돌아 마침내 얻어낸 참된 길.
그 무소유의 삶을 투명한 언어로 담아낸 보석 같은 명상집!

내 앞에 놓인 삶과 죽음의 비밀, 그것은 까마였습니다.
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?
내 이야기 내인 생활기록부의 부도 직업을 송사하면서 문득 나는 의문에 빠졌습니다.
내가 누군인지 빈 칸에 채워지는 공자대로의 내가 나인지.
그곳에 채워지는 나의 모든 것들이 진리 나의 것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.
비림이 몹시 심하게 풀던 어느 날 나는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었음고
또 문다가 기면이 잠을 꾸러기 시작했습니다.
그러고는 인도로 아르미카로 히말리아로 사막으로
나를 찾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.
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뒤 나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
본문 중에서.

임현담 지음 / 값 7,000원 /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.
도서출판 초당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88-131호 대표전화 717-1085 팩스 717-1087

“원효 體·用論 서양사상 새 틀 제시”

국제원효학회 워크샵 ‘원효학 세계화’ 모색

체용(體用·몸과 몸짓)의 논리
로 집약되는 원효스님의 사상이
국지적 해석에서 벗어나 범세계
적 해석으로 나아가길 때, 서양 중
교·철학관에 새로운 틀을 제공
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.
국제원효학회(공동회장 송석구)
는 12월15~20일 해인사 백련암에
서 《금강경》을 탐독하고 불교·인
간·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
로 원효스님의 사상적 자리매김
을 시도한 원효학 워크샵을 개최,
이같은 가능성을 확인했다.
워크샵에는 원택스님(백련불교
문화재단 이사장), 박성배 석좌교
수(동국대)를 비롯해 전현(시카고
매코릭 신학대) 이명섭(성균관대)

김용표(동국대) 조성택(뉴욕주립
대) 교수 등 불교학자 신학자 철
학자 20여명이 참여했다.
“원효학을 어떻게 세계에 알릴
것인가”를 주제로 발표한 박성배
교수는 “원효스님의 사상적 어정
은 참다운 몸·몸짓(體·用)을 찾
아가는 길”이라며 스님의 사상을
정의했다. 또 “스님은 삼독심(三
毒心)에서 시작된 아상·번뇌·

망상 등 헛된 몸과 몸짓을 경계했
다”며 “이것은 기독교 수행관에서
도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”이라고
강조했다.
전현교수도 “스님의 지적·신앙
적 탐구는 몸·몸짓의 관계 속에
서 인간 문제를 고뇌한 흔적”이라
고 말했다. 또 “몸·몸짓 논리를
수용하는 자체가 기독교 신앙·
사상 상의 난제들을 풀 수 있는

이야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한편 김용표교수는 ‘불경이 제
기하는 해석학적 문제’를 통해
“흐름을 붙여 근원으로 돌아가
는 법으로서의 경전 독법과 몸짓
을 몸으로 돌이키려는 끝없는 공
화(空化)의 수행이 곧 경전해석
학”임을 밝혔다.
이명섭교수(성균관대)는 ‘不’
로 풀어 본 《금강경》의 즉비(即
非)와 데리다의 문자학:원효의 몸
/몸짓론적 시각’에서 “해체철학자
인 데리다의 사유방법은 불교의
공관과 유사하나 체(體)를 찾지
못하는 몸짓”이라고 지적했다.

오종욱 기자

“한국의 전통예술” 등 문화유산도서 3권 출간

“우리 문화유산 자부심 갖자”

전국민에게 우리문화유산의 소중
함을 일깨워 줄 《한국의 문화유산》
《한국의 세계문화유산》과 《한국의
전통예술》 등 세권이 출간돼 화제
다.
문화유산의 해를 마감하는 즈음
에서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
지난 한 해 동안 시행해 온 사업들
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펴낸 《한
국의 문화유산》은 우리문화의 흐름

을 정리한 문화사와 함께 선사시대
부터 조선시대까지 각 시대별로 건
축·성곽·회화·공예·조각·전
통·문양·지도 등을 현존하는 유
물과 유적에 근거해 기술했다.
문화유산의해 조직위와 삼성문화
재단이 공동으로 펴낸 《한국의 세
계문화유산》은 세계문화유산으로
등재된 불국사 석굴암, 종묘, 해인
사 장경과 판전, 창덕궁, 수원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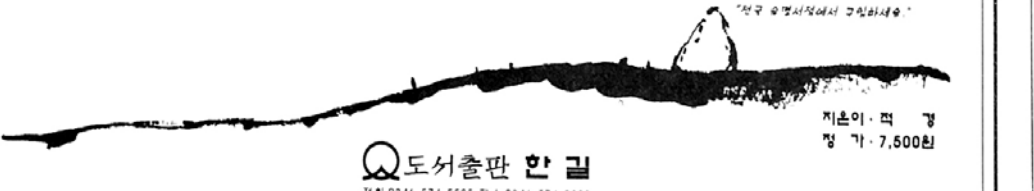


등 우리문화유산의 역사적 의의와
현황 등을 칼라사진과 함께 소개하
고 있다.
《한국의 전통예술》은 음악·무
용·놀이·연극·의식 등의 유래와
내용, 현재까지의 전승과정을 소개
했다.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
참고도란 사진자료를 실었으며 각
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집필을
맡았다.
이들 문화유산 도서들은 청소년
과 일반인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
보다 상세히 알게 이끌어주고, 자
주문화국민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줄
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이.세.상.에.감.취.진.진.정.한.우.리.의.행.복.찾.기

백우이야기

고통과 행복의 틈, 파종우물마면 진정한 삶과 행복을 향한 끊임
없는 구도의 여정을 불교적 관점에서 시의 형태로 표현해낸 아름
다운 서사시이다.
-기녀사
대단히 고급스런 문체에다 내용이 아주 깔끔해요. 음악으로 치자
면 명상음악같은 느낌을 지닌 것과 맞이 있는 책이에요. 근백에
읽은 도서 중 가장 평성을 타하여 읽었습니다.
-서인 광경+
'백우이야기'는 삶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우쳐
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.
-서인 광경



지은이·백 경
정 가·7,500원
도서출판 한길
전화 0346 574 5565 팩스 0346 574 0808